

2026. 8. 10

소비재/플랫폼 Weekly

신선식품 이커머스 경쟁 재점화: 롯데 제타 스마트 센터 가동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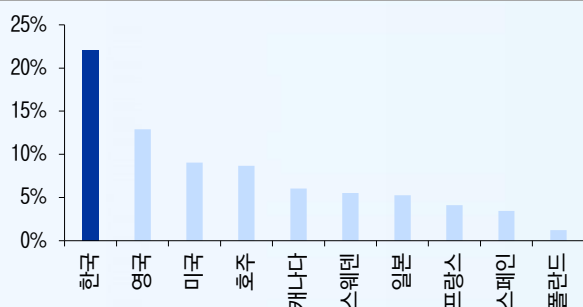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다시 심화될 전망: 롯데마트 오카도 CFC 오픈, 가동 시작
- ✓ 부산 CFC: 일처리 3만건 이상의 캐파, 롯데마트 기존 부산/경남 온라인 주문량의 2배가 넘는 수준
- ✓ 자동화 설비의 효율보다 충분한 주문 물량 확보가 더욱 중요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 1 국가별 신선식품 이커머스 침투율(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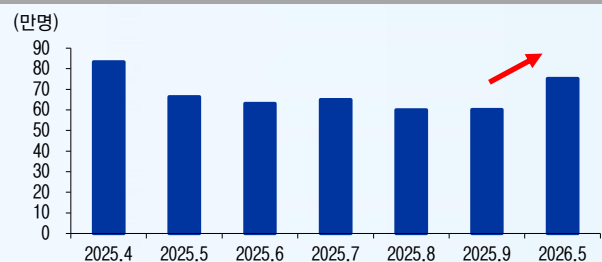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LS증권 리서치센터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 센터 가동 시작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다시 심화될 전망. 롯데마트는 8월 7일 부산 강서구에 첫 번째 오카도 CFC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본격 가동. 부산 CFC는 하루 3만건 이상의 주문 처리 캐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부산 및 경남 지역 온라인 주문량의 2배가 넘는 수준. 단순히 기존 주문을 자동화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온라인 주문의 Organic한 증가까지 감안해 여유 캐파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말부터 부산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밤 11시까지 주문 시 익일 오전 7시 30분 이전 배송하는 새벽배송도 시작. 기존 점포 기반 당일/예약 배송에 CFC 기반 새벽배송이 더해지면서 영남권에서도 쿠팡, 컬리, SSG닷컴과의 직접 경쟁 기반이 마련됨.

그림 3 롯데마트 제타 앱 MAU 추이: 2026년 들어 반등



자료: 아이지메이웍스,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동화보다 중요한 주문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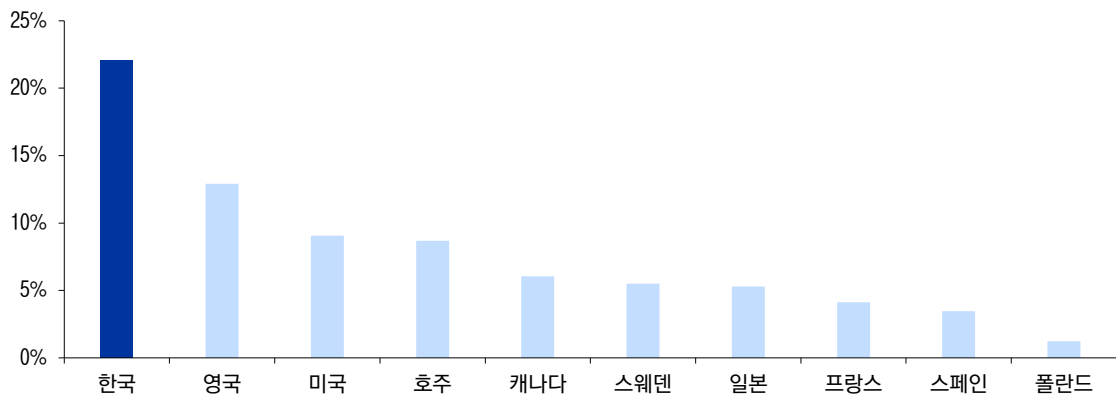
다만 오카도 모델의 성패는 결국 주문 밀도에 달려 있음. 캐나다 소매는 CFC 3개 운영 이후 2024년 오카도와 협업을 중단했고, 미국 크로거도 당초 20개 CFC 구축을 계획했으나 실제 구축은 8개에 그침. 이 중 Pleasant Prairie, Frederick, Groveland 등 3개 CFC를 2026년 1월 폐쇄했고, Charlotte CFC 건설도 취소. 대규모 자동화센터가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따라서 롯데마트 역시 초기에는 CFC 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며, 일 3만건 이상의 처리능력이 실제 주문 증가와 높은 가동률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가 손익 개선의 핵심이 될 전망.

신선식품 이커머스 경쟁 재점화

롯데마트 제타 스마트 센터 가동 시작

신선식품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8월 7일 부산 강서구에 첫번째 오카도 CFC인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부산 CFC는 하루 3만건 이상의 주문 처리 캐파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롯데마트가 기존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처리하던 온라인 주문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단순히 기존 주문을 자동화센터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주문의 Organic한 증가까지 감안해 상당한 여유 캐파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셈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부산 전역과 경남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오전 7시 30분 이전 배송하는 새벽배송도 시작했다. 기존 점포 기반의 당일/예약배송에 CFC 기반 새벽배송이 더해지면서, 영남권에서도 쿠팡, 컬리, SSG닷컴과 배송 경쟁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림1 국가별 신선식품 이커머스 침투율(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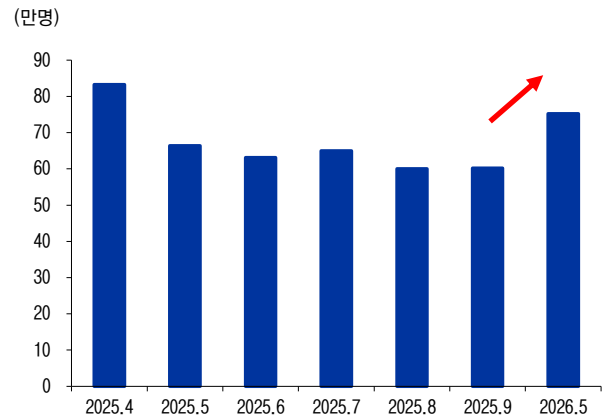
자료: Ocado,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



자료: 관세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롯데마트 제타 앱 MAU 추이: 2026년 들어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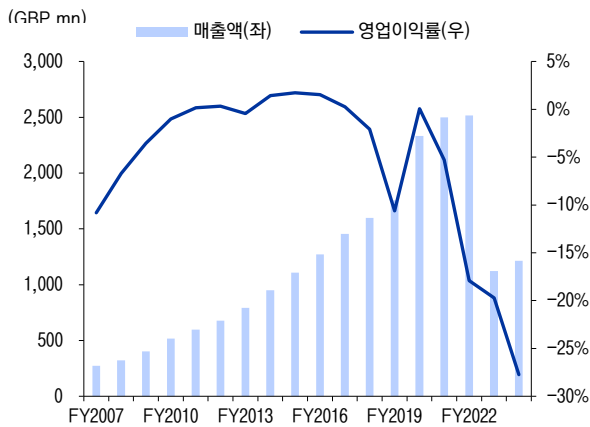


자료: 아이지아이웍스,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동화보다 중요한 주문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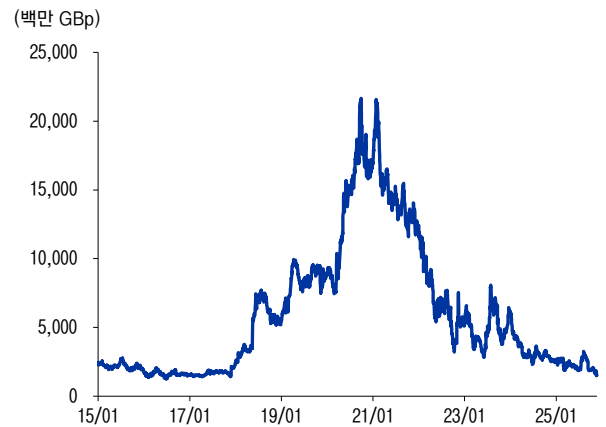
다만 중요한 것은 주문 밀도다. 오카도 모델은 해외에서 이미 자동화 설비의 효율보다 충분한 주문 물량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캐나다 소베이는 CFC 3개를 운영한 이후 2024년 오카도와의 협업을 중단했고, 미국의 크로거 역시 2018년 Ocado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미국 내 20개 CFC 구축을 계획했으나 실제 구축된 센터는 8개에 그쳤다. 이 중 운영 및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Pleasant Prairie, Frederick, Groveland 등 3개 CFC를 2026년 1월 폐쇄하면서 현재 기존 운영 센터는 5개로 축소됐다. 2026년 가동 예정이었던 Charlotte CFC 건설도 취소했다. 대규모 자동화센터가 충분한 주문 밀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초기에는 CFC 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동화 물류센터 가동에 따라 실제 주문 증가로 연결되는 속도가 손익 개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림4 오카도 실적 추이



자료: Ocado,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오카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6,259	51,599,986	-5.1	-18.3	-16.4	23.0	93.9	48.5	-	-	-	-	-	-
코스피 대형주	6,803	47,256,903	-6.2	-19.5	-15.8	26.9	110.4	55.4	-	-	-	-	-	-
코스닥	799	4,391,649	11.0	-3.9	-33.4	-26.1	-0.9	-13.7	-	-	-	-	-	-
코스피 중형주	3,983	3,420,622	8.3	-3.2	-22.6	-4.5	12.4	7.0	-	-	-	-	-	-
코스피 소형주	2,331	884,295	5.9	0.8	-21.6	-12.8	-6.2	-7.4	-	-	-	-	-	-
유통														
코웨이	95,700	67,724	4.6	-1.1	10.1	22.4	-11.9	10.1	11.2	9.3	8.1	1.9	1.6	1.4
호텔신라	42,700	16,759	-2.0	-21.2	-35.0	-13.0	-14.8	-4.3	-11.8	14.8	10.4	1.5	1.3	1.2
BGF 리테일	153,100	26,462	22.5	21.3	14.3	25.1	25.1	46.1	14.1	11.4	10.1	2.0	1.8	1.6
GS 리테일	28,350	23,703	14.6	9.9	20.4	36.3	73.0	41.0	16.0	11.7	10.4	0.7	0.7	0.6
롯데쇼핑	99,700	28,204	-15.0	-42.9	-26.8	2.8	36.4	37.5	35.9	7.5	6.4	0.2	0.2	0.2
신세계	420,000	39,670	-0.7	-38.2	-3.0	27.5	135.6	70.0	39.2	10.2	8.9	0.8	0.8	0.7
이마트	81,600	22,518	2.3	-3.7	-24.7	-20.2	-9.7	0.4	7.0	17.9	9.9	0.2	0.2	0.2
현대백화점	101,800	21,953	-14.3	-42.3	-10.5	1.9	37.6	14.9	10.1	8.1	6.3	0.5	0.5	0.4
SK 네트워크스	7,820	15,686	6.8	-14.4	15.7	53.9	73.2	73.0	32.3	18.2	21.5	0.8	0.7	0.7
인터넷														
NAVER	210,000	329,583	1.0	6.5	1.2	-15.7	-10.8	-13.4	15.4	17.8	14.6	1.1	1.1	1.0
카카오	39,900	176,749	6.7	12.7	-11.8	-29.0	-37.3	-33.6	32.9	29.1	18.8	1.7	1.5	1.4
게임														
크래프톤	241,500	111,423	-0.6	-1.4	-10.6	1.5	-25.8	-1.8	13.1	12.0	9.1	1.4	1.3	1.2
넷마블	40,900	33,511	6.8	4.2	-13.2	-25.2	-33.9	-15.2	11.1	6.9	11.0	0.6	0.6	0.5
NC	248,500	53,537	6.0	-2.6	-1.8	14.8	22.1	23.3	14.9	11.5	10.6	1.4	1.3	1.1
펄어비스	35,600	22,372	7.2	-4.7	-32.2	-33.2	-10.3	-4.8	-256.6	6.3	13.3	2.8	1.9	1.6
카카오게임즈	8,330	8,892	4.5	7.1	-27.3	-45.7	-50.2	-44.1	-5.6	-8.0	27.6	0.6	0.8	0.8
더블유게임즈	62,300	13,191	3.7	-6.5	5.6	12.1	10.7	16.2	9.0	6.8	5.8	0.9	0.9	0.8
NHN	41,800	13,691	12.7	7.7	5.6	33.8	45.6	43.9	38.7	12.0	9.8	0.9	0.8	0.8
웹젠	12,250	3,793	4.1	4.5	2.3	-15.5	-17.5	-5.0	14.8	13.7	18.8	0.6	0.5	0.5
컴투스	33,650	4,069	13.7	28.2	4.5	-0.4	-14.5	15.8	85.3	23.5	11.7	0.4	0.4	0.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41,800	82,943	9.1	12.1	9.2	3.3	8.9	18.7	36.5	26.3	22.9	1.8	1.7	1.6
LG 생활건강	333,500	49,943	16.2	29.3	21.3	27.5	11.5	29.0	46.2	24.6	19.8	1.0	1.0	1.0
실리콘투	39,300	25,771	15.8	2.1	-12.3	-4.8	-25.0	1.7	14.2	11.4	9.1	5.7	3.9	2.8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7,250	20,835	6.9	8.6	0.6	-10.5	-7.0	1.5	16.7	n/a	n/a	0.7	n/a	n/a
한국콜마	106,700	25,187	12.1	-7.3	22.8	54.4	4.5	71.8	24.3	14.4	12.1	2.9	2.4	2.0
코스맥스	205,500	23,323	11.3	12.3	-1.2	3.7	-22.7	26.1	40.4	15.4	12.8	4.7	3.5	2.9
브이티	13,580	4,745	16.2	11.5	-16.0	-28.0	-63.4	-22.4	8.0	8.3	7.4	n/a	1.6	1.3
코스메카코리아	95,900	10,242	21.7	13.6	25.2	-0.6	42.3	44.0	20.9	14.9	12.9	3.9	3.2	2.6
씨앤씨인터내셔널	20,700	2,821	15.6	3.2	-22.3	-39.3	-52.2	-30.2	12.6	15.4	13.8	1.4	n/a	n/a
클리오	11,190	2,022	3.4	-0.4	-13.4	-14.5	-26.8	-14.1	14.7	9.8	9.1	n/a	0.8	0.7
한국화장품제조	8,590	1,946	9.3	1.3	-10.8	-15.0	-38.6	-12.2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8,510	1,420	12.7	2.3	-16.0	-42.7	-50.8	-37.7	6.1	7.6	6.5	1.3	1.2	1.0
마녀공장	17,310	2,838	11.5	16.5	14.9	22.8	-3.0	26.4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8.7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Overweight (비중확대)			
	업종 비중 기준	Neutral (중립)			
	투자등급 3단계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투자등급 3단계	Hold (보유)	-15% ~ +15% 기대	9.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